

배포 일시	2022. 6. 14.(火)			
담당 부서	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전성배 (02-2131-2040)
		담당자	사무관	장승권 (02-2131-2037)
	환경부 토양지하수과	책임자	과 장	이정용 (044-201-7170)
		담당자	사무관	안성보 (044-201-7174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용산공원 시범개방은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.

< 관련보도 주요내용 ('22.6.14일, 경향신문) >

- ◆ 발암물질 용산공원 '하루 2시간' 이용시간 제한 유명무실
- 오염토양에 대해 '주3회, 하루 2시간 이용' 체류시간 제한은 정부 방침

□ 용산공원 시범개방은 과거 부산시민공원(캠프 하야리아) 임시개방 사례*, 1일 개방시간(10시간)과 입장회차(5회), 편의시설 수용량, 공원 평균 이용실태*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회 평균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계획하였으며, 2시간으로 이용시간을 제한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.

* (임시활용) '10.4~'10.9월 ⇨ (오염정화) '11.4~'12.8월 ⇨ (공원 개장) '14.5월
- 60분 또는 90분 단위로 이용가능한 관람코스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임시개방

** '15년 서울시의회 도시공원 이용특성 및 만족 여론조사 보고서 결과, 1회당 통상 2시간 이내 이용

○ 아울러, 2시간이라는 시간은 인체 위해성 여부의 판단기준은 아니며, 예약하신 회차에 입장하신 후에는 종료시간까지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.

□ 이번에 시범개방하는 지역은 최근까지 미군 가족들이 생활하던 곳으로,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.

- 위해성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거나, 관람 지역은 산책로 조성, 잔디식재 등 토양의 직접적인 인체접촉을 차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완료하였으며, 포장도로 위에 있는 푸드트럭 및 음용수체험 부스 등은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.

120년 동안 금지되었던 용산공원
**시범개방으로
 더 가까이
 국민을 맞이하겠습니다**



1. 용산공원 시범개방을 추진한 이유는요?

용산공원 남쪽부지는 **임시개방**하기로 지난해 결정된 것입니다.

올해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함에 따라, 국민들에게 용산공원을 **체험할 기회를 미리 제공**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**의견을 경청**하기 위해

국민안전이 보장되는 개방구역 설정과 조치를 전제로 **한시적(6.10~19, 10일간)**인 시범개방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.

국민들의 소중한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

2.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데 안전한가요?

시범개방 구역은 최근까지 미군 가족들이 생활하던 곳입니다.

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조사 결과는 **매년 350일씩 25년 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**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.

이번 개방은 평균 2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**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수준**으로 일부 위해성 주장은 과장된 것입니다.

인체 영향이 미미하지만,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위해성 우려가 있는 지역은 **개방 대상에서 제외**하거나, **도로포장, 잔디식재** 등을 통해 **접촉을 차단**하였습니다.



3. 직접적인 토양 접촉을 차단해도 호흡기를 통해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지 않나요?

도로포장, 잔디식재를 했기 때문에 **땅 속의 오염물질이 휘발될 가능성은 극히 적으므로** 인체 위해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또한, 향후 **휘발성 물질을 땅 속에서 직접 포집하여 제거하는 기술** 등을 적용하여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.



4. 1회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한 것은 위험성을 인정한 것 아닌가요?

이용시간 제한은 인체 위해성 때문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**최대한 많은 관람 기회**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.

과거 부산시민공원 임시개방 사례, 1일 개방횟수 및 편의시설 수용능력, 공원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**평균 2시간**으로 계획하였습니다.

**용산공원이 대한민국의 주인인
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만큼
 국민들의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
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!**

